

7/26(화) 이사야 6-12장 듣기는 듣고, 보기는 보아도

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 부름 받았습니다(6:1).
그는 환상을 통해 <하늘 보좌>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,
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 누구신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.
강력한 왕의 죽음(웃시야), 득세하는 이방 왕들로 근심하던
이사야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.

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부정함 <보게> 되었습니다(6:5).
위로부터 정함을 얻은 후 영적으로 민감해진 이사야는(6:6-7)
천상회의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<듣게> 되었고,
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응답했습니다(6:8).
보고, 듣고, 깨닫고, 적극 순종한 것입니다.

그러나 백성들의 눈과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(6:9-10).
기름/예물/뇌물/장신구/옷/술/잔치로 둔감해진 상태였습니다.
타락과 부패, 불의와 악자들의 신원에 눈멀고 귀 먹었습니다.
(1:11,23/ 3:18-23/5:8/5:11-12, 28:7/1:23, 29:9-10).

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.
그 날에, 하나님은 <열방>도 심판하실 것입니다(2:2-3).
모든 불의와 불완전한 질서/제도들에 <실패! >가 선언되고
<새로운 다윗>의 통치 아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(9:1-7, 11장).
창세전의 공허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(1:9, 6:13, 24:1,3).

그 날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눈과 귀가 열릴 것입니다.
하나님의 바른 질서,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입니다.

“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..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...
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
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”
(29:18, 32:1-4, 33:15, 마11:5 참고)

나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?

- ❶ 보고, 듣고, 깨닫고, 순종하고 있습니까?
- ❷ 나의 눈/귀/마음을 막고 둔감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6-12장